



23골 모두 필드골

치명적인 손흥민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의 손흥민이 23일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 시티와의 최종 38라운드 경기에서 팀의 5번째 골이자 23호 골을 터뜨린 뒤 환호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22, 23호 골을 연달아 터트리며 팀의 5대 0 대승을 이끌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아시아인 첫 EPL 득점왕에 등극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EPL 공동 득점왕 살라와 어떻게 달랐나

결국 타이틀은 '공동 득점왕'이 됐지만, 손흥민(토트넘)이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가장' 치명적인 골잡이였음은 확실해 보인다.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2021-2022시즌 EPL 38라운드 최종전에서 2골을 폭발, 정규리그 득점을 23골로 늘리며 무함마드 살라(리버풀)와 득점 공동 1위에 올랐다.

손흥민의 '득점 순도'가 살라보다 높다는 점은 여러 수치로 증명된다.

손흥민은 페널티킥 없이 필드골로만 23골을 넣었다. 살라는 23골 중 5골을 페널티킥으로 작성했다.

페널티킥이 '무조건 득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필드골보다 득점 쌓기에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손흥민의 득점 기록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슈팅 수 대비 득점을 따지는 득점 성공률에서 손흥민은 'EPL 골잡이'들 가운데 독보적인 수준이었다.

손흥민은 슈팅 86개를 날려 23골을 넣어 성공률 27%를 기록했다.

살라(17%·리버풀), 득점 랭킹 3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6%·맨체스터 유나이티드), 4위 해리 케인(13%·토트넘), 5위 사디오 마네(16%·리버풀)보다 10% 이상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손흥민 페널티킥 0골 - 살라 5골
슈팅 성공률 27%, 살라 17% 앞서
어려운 상황서 많은 득점 성공

그만큼 손흥민의 발끝이 경쟁자들보다 예리했다는 얘기다.

손흥민은 공격수의 득점력을 비교하는 데 쓰이는, 비교적 새로운 지표인 기대득점(xG)에서도 살라를 크게 앞섰다.

xG란 실제 득점에 득점 가능 확률을 반영해 매긴 수치다.

수치를 산정하는 주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슈팅 위치, 어시스트의 질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된다.

예를 들어 문전에서 손쉽게 발만 갖다대 득점한 것은 0.96골, 난도 높은 중거리 슈팅에 이은 골은 0.12골로 계산하는 식이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과 살라의 xG를 비교했다.

손흥민의 xG는 실제 넣은 득점보다 7골이나 적은 15.69골을 기록했다.

한 시즌 손흥민의 득점 장면 전체를 놓고 볼 때 슈팅의 난이도를 고려하면 15-16골 정도를 기록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7골이나 많이 넣었다는 뜻이다.

그만큼 손흥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도한 슈팅을 득점으로 많이 연결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반면에 살라의 xG는 실제 득점을 웃도는 23.62골이었다. 손흥민보다 비교적 쉬운 슈팅을 성공시켰다는 의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대 안으로 볼을 정확히 보낼 수 있는 '수단'을 2개나 가지고 있었기에 손흥민은 '골든 부트'를 거머쥘 수 있었다.

손흥민은 23골 중 원발로 12골, 오른발로 11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주로 사용하는 발은 오른발인데, 원발로 그보다 많은 골을 넣은 것이다. 말 그대로 양발 사용의 달인 경지에 오른 것이다.

축구 통계 전문 유포에 따르면 손흥민은 EPL에서 오른발잡이면서 한 시즌에 원발로 10골 이상을 넣은 두 번째 선수다.

같은 오른발잡이인 케인이 2017-2018시즌 원발로 10골을 넣어 이 부문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이 원발을 오른발처럼 잘 쓰게 된 것은 아버지이자 스승인 송용성 씨의 철저한 기본기 교육 덕이다.

손씨는 손흥민이 양발을 신거나 바지를 입을 때 원발부터 시작하도록 했다고 한다.

손흥민이 분데스리가에서 프로에 데뷔한 뒤에도 오프시즌에 하루에 원발과 오른발로 슈팅 500개를 차도록 하는 등 혹독하게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이젠 네이마르와 득점포 대결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2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6월 A매치 4연전에 대비한 28명의 대표팀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벤투호 A매치 4연전 준비
6월 2일 서울서 브라질과 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를 정복한 손흥민(30)이 6월 벤투호의 선봉으로 돌아온다.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6월 A매치 4연전에 대비한 28명의 대표팀 선수 명단을 23일 발표했다. 손흥민은 당연히 벤투호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은 내달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브라질과 맞붙는다. 유럽 최고 골잡이인 손흥민과 브라질의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삼각별에서 득점포 대결을 펼친다.

대표팀은 이어 6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칠레,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파라과이와 대결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14일 상대는 아프리카 팀이 될 전망이다.

이번 A매치 4연전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비한 실전 모의고사다.

선발 선수 면면에 큰 변화는 없다. 공격진에는 황의조(보르도)와 조규성(김천)이 선발됐다. 황희찬(울버햄프턴)도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렸다.

벤투호 공격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황인범은 지난 1~2월 시리아, 레바논과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 뒤 약 4개월 만에 대표팀에 복귀한다.

발가락을 다쳐 회복에 전념하던 황인범은 서울에서 최근 5경기 연속 출전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미드필더진에 새로 뽑힌 김동현(강원FC)은 20세 이하(U-20) 대표팀과 U-23 대표팀에는 여러 번 선발됐지만, A대표팀에는 처음으로 뽑혔다.

부상에서 회복중인 김민재(페네르바체)와 박지수(김천)가 제외돼 공격이 생긴 수비진에는 조유민(대전하나시티즌)이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고 합류한다.

조유민은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의 주역이다.

벤투 감독은 "조유민은 수비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빌드업 과정에서 쉽게 플레이한다. 기술적으로 올바르게 경기하는 선수"라면서 "대표팀 센터백 포지션에 문제가 있어 조유민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A매치 한국 축구대표팀 벤투호 선수 명단

- 6월 2일 브라질 전(서울월드컵경기장)
- 6일 칠레 전(대전월드컵경기장)
- 10일 파라과이 전(수원월드컵경기장)
- 14일 미정, 아프리카 팀 전(미정)

FW 황의조(보르도), 조규성(김천)
MF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정우영(말사드), 백승호-김진규-송민규(전북), 김동현(강원), 황인범-나상호(서울), 고승범-권창훈(김천), 정우영(프라이부르크)
DF 김영권-김태환(울산), 권경원(강바오사카), 정승현(김천), 조유민(대전), 이용-김문환-김진수(전북), 홍철(대구), 박민규(수원)
GK 김승규(가시와레이슬), 조현우(울산), 김동준(제주), 송범근(전북)

득점왕 손흥민 “어릴 때 품었던 꿈이 이루어졌다”

EPL 최종전 뒤 인터뷰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 감사”

“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한 '손세이셔널' 손흥민(30·토트넘)은 “믿을 수 없다”며 감격했다.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의 캐로 로드에서 열린 노리치 시티와 2021-2022시즌 EPL 최종 38라운드에서 2골을 몰아치며 토트넘

의 5-0 대승에 힘을 보탰다.

멀티골로 리그 22-23호골을 잇달아 기록한 손흥민은 이날 울버햄프턴을 상대로 1골을 넣은 무함마드 살라(리버풀·23골)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경기 뒤 중계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격정을 숨기지 않았다.

손흥민은 “(득점왕은) 어릴 때부터 꿈꿔온 일인데 말 그대로 내 손 안에 있다”면서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정말 감격스럽다”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득점포를 가동하기 전 몇 차례 쉬운 득점 기회를 놓쳤다. 노리치 시티 골키퍼 팀 크롤의

선방에 여러 번 골이 무산됐다.

계속 슈팅이 막히자, 손흥민이 황당하다는 듯 웃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손흥민은 “첫 골을 넣기 전 좋은 득점 기회를 놓쳐 정말 좌절스러웠다”면서 “동료들에게 ‘쉬운 건 다 놓치고, 어려운 슈팅만 성공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2-0으로 앞서나간 뒤 ‘단짠’ 해리 케인 등 동료들은 손흥민의 득점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손흥민은 “동료들이 나를 정말 많이 도와줬다. 여러분도 그 모습을 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